

익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확보 '총력'

정헌을 시장, 국회 찾아 사업 당위성 설명 국회상주반 본격 가동,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

익산시가 2020년 주요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주요 인사를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문화상 국회 의장 등 여러 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31일에는 지역구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찾아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의원과 국회단체에서 중점사업을 논의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수, 정은찬, 이용호, 안호영 의원을 차례로 찾아 익산시가 국회 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11대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익산시의 국회단체 중점사업은 산업안전 재해로부터 취약한 전북지역에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교육장인

△전라북도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총사업비 300억원), 백제역 사유적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214억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195억원),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3,418억원),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통시착공(2조 6,694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광장) 개설(3,500억원) 등이며 시는 이에 대한 내년도 요구 예산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특히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 익산시 환경개선사업으로 △북부 1차리분구 하구관거 정비사업(416억원),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343억원), △국가산

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00억원)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는 국회 상주반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헌을 시장은 "국가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기는 어렵다"며 "지역구 이춘석,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인현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윤경호 조재영 교수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첫 시술 성공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순환기내과 윤경호·조재영 교수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고 난이도 심혈관 시술로 꼽히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이하 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승인 기관에 지정되어 첫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심장에서 몸으로 혈액이 나가는 대문 격인 대동맥판막이 딱딱해져서 잘 열리지 않는 판막질환으로, 흉통,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상당수 환자가 2~3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약물치료만으로는 증상이나 생존율을 호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새로운 판막을 삽입하는 개흉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으나 최신 치료법인 TAVI는 가슴을 열지 않고 새로운 판막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흉술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TAVI 시술을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여 경험·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 시행할 수 있다.

시술의 전반적인 과정은 기존에 흔히 시행하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시술 시간은 약 1~2시간 가량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없다면 시술 후 7일 이내에 퇴원하여 일상 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신 의료기술이다. 원광대학교 병원은 지난 7월 시술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25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술을 시행했다.

윤경호 심혈관센터장은 "TAVI 시술은 고령이나 전신마취 등으로 개흉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최첨단 치료 방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증된 병원에서 TAVI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익산=정인현 기자

군산시, 민선7기 조직개편 단행

문화·관광 자원 활용한 도시재생 목적

군산시는 민선7기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육성 및 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생활경제 강화, 업무간 연계성과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복지부서 개편,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군산시는 '9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2계'로 1개국, 5개계가 증가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1국당 8개과씩 관할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재배치했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5개과로 구성했으며, 복지관광국은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행정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이관했다.

시 역점사업 추진의지 표명과 시민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소상공인 지원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지원과를 경로장애인과로,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변경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할 지역화폐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구축과 군산시 공공배달업을 운영할 유통혁신계를 비롯해 행정변화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지원계, 여항시설

계, 어선어업계, 수영장관리계, 농기계지원계 등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최소화를 위해 일부부서를 통합 및 폐지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 부서별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TF팀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적합한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중 자치법규 공포를 통해 오는 2020년 1월 군산시 정기간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점검

군산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항 및 비상 저감조치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1일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강임준 시장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뿐 아니라 관련부서가 협업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중심의 대응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협업부서의 해당과장들은 부서별 추진사항과 겨울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계획을 철저히 분석 보고했다.

먼저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조사용역

을 실시해 군산시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우리시 환경보전 방안에 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및 불법행위 감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비상저감조치시에는 관급 및 민간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단축 등을 조치해 하고 이행실태등도 강력히 점검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항 및 비상 저감조치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익산시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익산시는 기존 3%의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기미납일 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일 '익산시 상수도 급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고

지분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한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미납일 1개월 이내만 적용되며,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고정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기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익산=정인현 기자

군산시, 관내 유망 강소기업 육성 합동 심포지엄

군산시는 그동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따라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는 전북세민금산학융합원에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해 강소특구 지정 참여 연구기관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올해 처음 선정된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